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올해 1~2월 교역액 8.3% 감소(달러화 기준)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의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8.3% 감소한 8,957억 달러이며, 이 중 수출은 6.8% 감소한 5,063억 달러, 수입은 10.2% 감소한 3,894억 달러임
- 1~5위 무역파트너는 아세안, EU, 미국, 일본, 한국으로 각각 전체 교역액의 15.4%, 13.8%, 11.4%, 5.6%, 5.4%를 차지
- 국가별 수출은 아세안, EU,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전체의 16.3%, 15.8%, 14.1%, 5.3%, 4.8%를 차지, 수입은 아세안, EU, 미국, 중국 타이완, 호주,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각각 전체의 14.2%, 11.1%, 7.8%, 7.1%, 6.5%, 6.2%를 차지
- 한편 1~2월 전기기계 제품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13.8% 감소한 4,230억 달러이며, 이 중 수출은 7.2% 감소한 2,940억 달러, 수입은 25.8% 감소한 1,290억 달러임
- 품목별 수출은 자동 데이터처리 설비·부품, 집적회로, 가전제품, 일반기계설비, 조명제품, LCD 디스플레이 모듈 등 중점 품목 수출이 보편적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가전제품 수출은 13.2% 감소한 122억 달러, 영상음향기기 및 부품 수출은 9.8% 감소한 51억 달러, LCD 디스플레이 모듈 수출은 27.5% 감소한 36억 달러임
- 품목별 수입은 1~2월 집적회로 수입은 30.5% 감소한 478억 달러, 반도체 디바이스 수입은 25.8% 감소한 35억 달러, LCD 디스플레이 모듈 수입은 44.1% 감소한 18억 달러임

자료원 : 금융계, 중국기전수출입상회

<https://baijiahao.baidu.com/s?id=1759764213503068025&wfr=spider&for=pc>

http://www.ce.cn/cysc/zgjd/kx/202303/10/t20230310_38436355.shtml

2 中 제조업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한 수출 확대

-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부터 통관 효율 제고, 해외창고 건설 확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반송비 인하, 물류 인프라시설 완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질적 성장 추진 등 정책을 통해 관련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2022년까지 국무원은 7차례에 걸쳐 31개 성·시에 165개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를 건설했으며 총 입주업체는 20만개사이고, 이 중 하이테크기업은 9,300개사에 달함. 저장성 Ningbo시의 ‘닝화통(宁化通)국제무역유한회사’ CEO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2년간 아마존, Wayfair, Lazada 등의 플랫폼에 입주하는 중소·영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함
-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하이테크 및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산둥성의 레이저절단기 생산업체는 알리바바닷컴(阿里巴巴国际站)을 통해 미국, 러시아, 터키, 한국 등 세계 각국으로 자사 제품을 수출 중임. 굴착기, 화물적재기, 로드롤러, 불도저 등의 수출도 증가세로 ‘SINOMACH(国机集团) 국제장비유한회사’의 왕찬밍(王传明) 회장은 2022년 자사의 해외매출이 60% 성장, 1월에는 90% 성장했다고 함
- 한편 중국의 식품기업 ‘광시뤄바왕(螺霸王)’의 관계자는 2022년 뿔스펀(螺蛳粉·우렁이국수) 수출액이 4,557만 위안(한화 약 86억 원)에 달했고 올해 1~2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했으며, 자사 뿔스펀의 해외 소비자(화교 제외) 비중이 1%에서 15%로 상승했다고 밝힘
-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B2B 포함) 총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2조 1,100억 위안(한화 약 402조 원)이며, 이 중 수출은 11.7% 증가한 1조 5,500만 위안(약 30조 원)에 달함. 올해 중국 상무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등 새로운 종류의 산업형태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수단을 통해 무역 잠재력을 발굴하여 중소·영세기업 수출을 지원에 힘쓸 예정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www.ce.cn/cysc/zgjd/kx/202302/28/t20230228_38417441.shtml

3 中, 지난해 기초화학산업·의약바이오·자동차·기계설비 등 기업 실적 양호

- 지난 3월 10일까지 A주 주식시장의 87개 상장회사가 2022년 재무제표를 공개했는데 70% 이상 기업(65개사)의 지난해 순이익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들 기업은 주로 기초화학산업(10개사), 의약바이오(7개사), 자동차(6개사), 기계설비(6개사) 등 업종에 집중됨

- 상기 업종의 투자기회에 대하여 찬차이증권(川財証券) 애널리트스는 다음과 같이 분석함 △글로벌 경기침체는 화학공업제품 수요를 일정 부분 억제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수요가 확실한 분야에 주목. 예로 배터리 산업은 격막(隔膜), 전해액(電解液) 등을 주목 △의약바이오 분야는 의료보장 시스템이 완비되면서 공공위생 분야의 투자가 늘어나 의료기기, 혁신 의약품 등을 주목 △자동차 분야는 중국산 신에너지차 브랜드의 국내외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탄소중립, 소비촉진 정책의 추진으로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여 리튬배터리 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
- 헤이치캐피탈(黑崎資本) CEO는 기초화학산업 분야는 부동산, 자동차 관련 도료와 화학품 선도기업, 전략적으로는 불소화학제품 선도기업, 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 등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finance.ce.cn/stock/gsgdbd/202303/11/t20230311_38437149.shtml

4 텐진시, 8월에 고무 플라스틱·포장재 전시회 개최 예정

- 2023년 제2회 중국텐진공업박람회, 2023년 중국텐진국제고무플라스틱공업전시회, 2023년 중국텐진 포장전시회 등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텐진시 국가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임
- 전시회 전시면적은 10만 평방미터, 참관객은 10만 명, 참가업체는 1,000개사에 달하며, 고위급 포럼 20여건을 개최할 예정. 이미 20여개 국가와 지역의 기업들이 부스를 예약했고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 7개 국가는 대표단의 형식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임
- 전시회 기간동안 China North Industries Group(中国兵器工业集团), JINGDIAO(精雕集团), HuazhongCNC(华中数控), GSK(广州数控), Hangji Machine Tool(杭机股份), BOHAI CHEMICAL(渤海化工) 등 업계 선도기업들이 스마트제조, 산업자동화, 금속절삭, 공정기계, 궤도교통, 전력설비, 열처리 기술, 유체설비(流体设备) 등을 선보일 예정임

자료원 : 중국무역신문

<https://www.chinatradenews.com.cn/content/202303/10/c150019.html>

5 中, 2023년 폴더블폰 출하량 550만 대 예상

- 아이리서치(艾瑞咨询)에서 발표한 '2023년 중국 폴더블폰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154.4% 증가한 360만 대이며, 2023년에는 550만 대에 달할 전망

- 폴더플 폰의 기업별 중국시장 점유율 현황은 화웨이 51.3%, 삼성 18.8%, OPPO 8.8%, 샤오미 7.7%, vivo 6.4% 등임. 한편 화웨이, 삼성, HONOR, vivo, 샤오미, OPPO 등 6대 브랜드의 고급 모델 판매가가 8,000위안(한화 약 151만 원)에 근접함
- 선두(深度)과학기술연구원 장샤오룽(张孝荣) 원장은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폴더블폰 출하량의 역성장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폴더블폰 출하량이 1,000만 대를 돌파하여야 시장이 초보적으로 안정되며, 기업들은 혁신을 강화하고 폴더블폰의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3-03-10/A1678451853035.html>

6 中 전문가, GPU·첨단 패키징 기술·자동차 전기장치 등 분야 발전 제시

- 중국 양회기간 여러 대표가 반도체 산업의 질적 성장에 대해 건의를 제기했으며, FANGDA GROUP 송젠밍(熊建明) 회장은 반도체 과목을 개발하고 반도체 혁신플랫폼을 구축하며 반도체 산학연구를 추진하여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함
- 업계 애널리스트는 집적회로, 전자기체(电子特气), 포토레지스트 등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5G, 커넥티드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의 보급으로 집적회로 산업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예상함
- 현재까지 90여개 반도체 상장회사가 2022년 재무제표를 공개했으며 47개사의 순이익이 증가세를 보였고 신위안구펀(芯原股份), 킵징커지(拓荆科技), 안루커지(安路科技) 등 14개사 순이익은 배로 증가함
- 찬차이증권(川财证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GPU칩, 첨단 패키징 기술, 자동차 전기장치(Automotive Electronics) 등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함. 디지털 경제와 AI 발전에 따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비교적 크고 첨단 패키징 기술은 경쟁업체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에너지차 보급으로 자동차 전기장치(Automotive Electronics)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stock/redian/2023-03-11/A1678480603046.html>

7 징둥그룹(JD), 지난해 내부 인큐베이팅 혁신사업 빠르게 성장

- 징둥그룹(JD)에서 발표한 2022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징둥공업(京东工业) 부문은 내부적으로 '공업 계약 이행 신경과학(IPNP)'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일련의 기술 제품으로 산업망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긴밀히 연결하여 기업의 공급망을 산업 공급망으로 변화시켰음

- 현재까지 징둥공업은 IPNP 프로젝트를 통해 8,000개 대기업과 자동차, 기계설비, 전자제품 등 분야의 10만 개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만 6,000개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
- 징둥공업 관계자는 디지털 스마트 기술은 커다란 응용 및 발전 잠재력이 있으며, 징둥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업제품 공급망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자료원 : 재경망

<http://tech.caijing.com.cn/20230310/4923054.shtml>

8 中, 1~2월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 각각 14.5%, 15.2% 감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5%, 15.2% 감소한 362.6만 대, 362.5만 대로 집계됨
- 승용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4%, 15.2% 감소한 311.2만 대, 312.1만 대임. 중국산 브랜드 승용차 판매량은 0.7% 감소한 163.1만 대로 시장점유율은 52.3%로 상승함
- 상용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7.8%, 15.4% 감소한 51.4만 대, 50.4만 대임
- 자동차 수출량은 52.9% 증가한 63만 대이며, 이 중 승용차 수출량은 57.7% 증가한 52.2만 대, 상용차 수출량은 32.9% 증가한 10.8만 대,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62.8% 증가한 17만 대임
-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은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3월부터 후베이성에서는 7개 브랜드의 58종 모델의 차량 구입시 5,000~9만 위안(약 94~1,70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음
- 지린성에서는 지정 브랜드 차량 구입시 최저 5,000~3.7만 위안(약 94~6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쓰촨성과 충칭시의 동평혼다(东风本田) 경소상은 최고 8만 위안(약 1,512만원)의 보조금을 제공

자료원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https://finance.sina.com.cn/tech/roll/2023-03-13/doc-imykszmc5534437.shtml>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3-03-10/A1678448252587.html>